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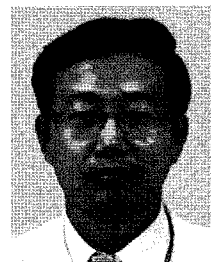
인터넷 의료정보의 현황과 전망

증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정보는 통합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의사의 지식과 결합이 되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초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정보 획득을 위한 인터넷의 장점이 맞물리면서 인터넷 의료정보 수요는 견잡을 수 없이 팽창하고 있다. 매년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보편화될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는 정보 집약적인 산업이다. 치료 비용을 낮추고 질은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의료정보 기술은 의료 산업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의 진료 환경에서는 환자 중심의 기록이 강조되고 협력 진료를 위한 의료 데이터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거의 시장 경제는 소비자 중심이 아닌 제품과 마케팅이라고 하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다. 의료 공급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는 시장에서 특수한 위치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한편 의료 시장에서의 소비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만 할 뿐 서비스의 내용과 질 등 모든 면에서 선택의 권한을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의료 시장은 전문 의료인만의 독점적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요구와 참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력 향상의 영향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교육적, 자료적 의미에서의 의료정보 제공이다. 질병에 대한 정보, 해당 질병에 관한 치료 방법, 치료율과 해당 질병과 관련된 의료진과 의료 기관에 관한 정보, 의료기기 정보, 의료 쇼핑물, 해외 의료정보 등에 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한 교육적 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정보 제공의 목적이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안내하거나 소개해 주는 자료적 의미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둘째, 상담 과정을



김경수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거쳐 생산해 내는 의료정보 제공이다. 정보 제공 의사와 의료 상담을 구하는 환자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상호교류를 전제로 하는 의료정보이며 이를 다시 추상적 의료 상담 정보와 구체적 의료 상담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상적 의료 상담 정보는 대부분의 의료정보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환자 측이 실제 어느 질병을 앓고 있거나 이러한 질병의 의심이 된다는 질문을 올리고 이에 대해 의사가 구체적인 질병 명을 특정하지 않고 이러한 질병의 의심이 있다거나 전문 의료 기관 및 의료인을 소개한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 의료 상담 정보는 환자에게 질병 명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 및 치료법 내지는 드물기는 하겠지만 인터넷상으로 복용 약을 처방하는 등의 상담 정보를 말한다. 단지의사와 환자가 직접적인 대면에 따른 촉진, 시진의 과정을 생략하였을 뿐 일련의 진료 과정을 모두 거치는 경우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의료 상담 정보 제공은 인터넷 공간 이외의 전화망 또는 화상을 통한 진료 형태 즉, 원격 진료 및 재택 진료의 형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는 의료정보를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의료 상담란을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질문에 의사들이 답변을 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 상담란 중에는 답변 내용이 형식적인 경우도 있지만, 때론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이나 복용할 약품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빠른 보급과 함께 병원들이 인터넷 상담에서 나아가 원격 진료 또는 재택 진료로까지 발전시켜 사이버병원화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환자들이 인터넷 의료정보를 찾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건강정보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의료정보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다양한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업데이트가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2003년 펴낸 의료 정책 포럼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의 56%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의료정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3%는 건강 상담, 6.9%는 교육·연구·학습, 3.6%는 식품이나 의료 기기 구입을 위해 인터넷 의료정보를 이용했다.

‘인터넷과 의료정보’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국민과 의료인이 기대하는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국민은 ‘건강정보’와 ‘질병 정보’에 관심이 있고 의료인은 ‘학술 정보’와 ‘의료 기술 정보’에 더 관심이 있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정보에선 퍼브메드(PubMed)와 같은 논문 정보가 가장 우선순위다. 국내 의학 학술지 정보는 최근 여러

단체에서 제공하기 시작하고 학회도 관심을 가져 많은 발전을 이뤄 국내 의학 논문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가 손쉬워졌다. 인터넷에서의 의료정보는 대부분 사용자 중심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불편하거나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 부딪치는 문제가 많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보가 폭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질 평가가 문제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은 이런 허위 광고에 더 쉽게 넘어가고, 질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을 수 있다. 사실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의사와 일반인의 시각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해 의사의 대부분은 불신하지만 일반인의 대부분은 신뢰하는 편이다. 2003년 의료 정책 포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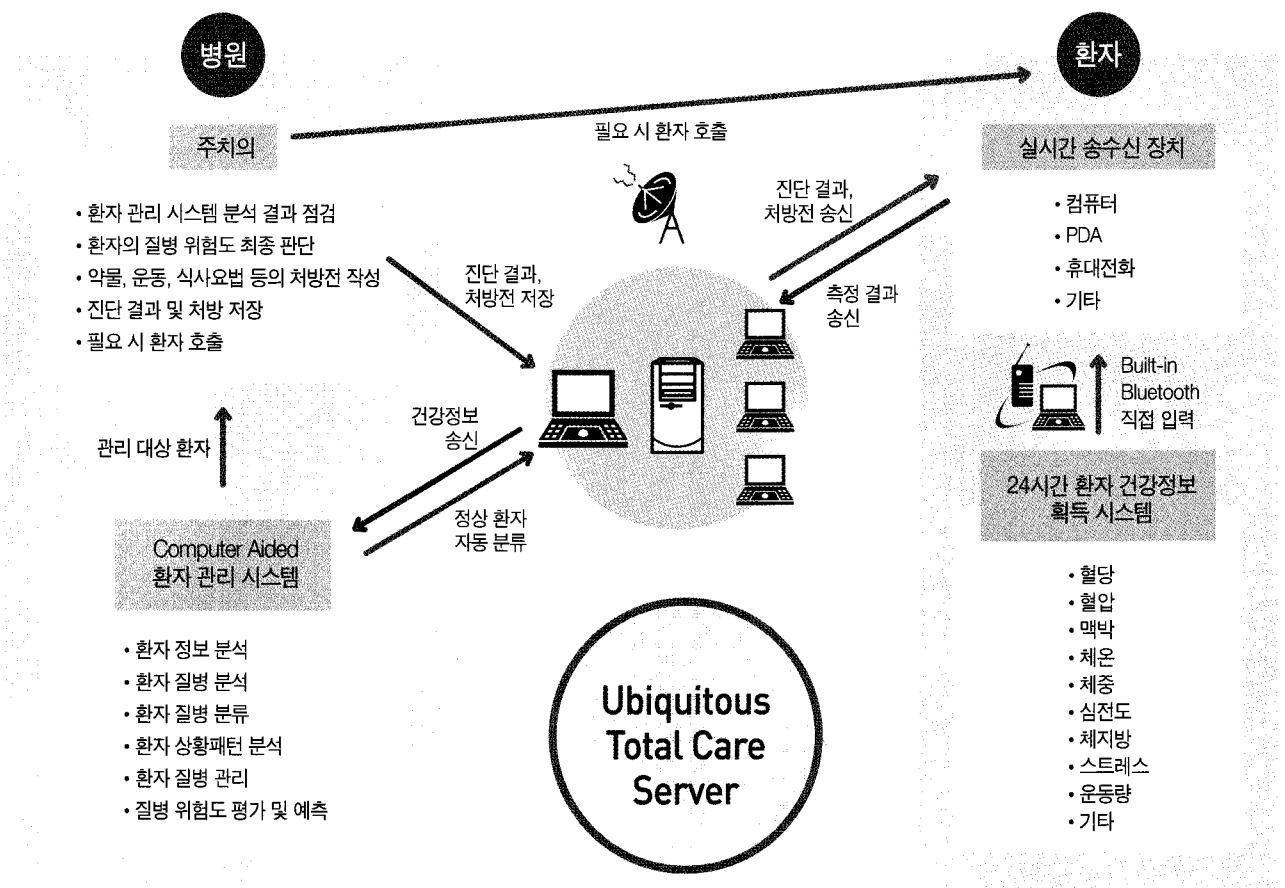


에 따르면 의사들은 인터넷 의료정보의 정확성을 20~30% 정도로 보고 있다. 소아 설사에 대한 의료정보 정확성은 20%, 혈관수술 33%, 유방암 63%, 소아 천식 36%로 평가했다. 반면, 일반인의 절반은 인터넷 의료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정은 서울대 간호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의료정보가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은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도 32.4%나 되므로 상당수가 인터넷 의료정보를 믿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인터넷과 의료정보’에선 인터넷이란 전송기술을 이용해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내용 그 자체의 질이 가장 큰 관심이다. 현 제도의 특별한 보안이나 개선이 없어도 의료인 대상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감시 및 전문가에 의한 인준 평가

작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유해 또는 건강에 무익한 과장의료 상업 내용에 대한 규제는 이미 실정법에서 가능하지만 그런 범망을 피하는 수준의 수많은 내용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 국민이 알아서 평가하는 도리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인준을 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지속하여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학, 건강정보가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글이 많고, 그나마 조금 신뢰성이 있는 글들도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퍼 나른 단편적인 글

들인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의사들과 보건 전문가들이 우려하듯 오히려 왜곡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동안 인터넷은 전송 기술 발전에 따라 표준화 등 여러 분야에 긍정의 효과를 미쳤고,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정보 시스템은 인터넷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도구가 나타나 의료정보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한 지 이제 10년 남짓이 지난다. 이제는 긍정이나 부정의 영향을 면밀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초창기 인터넷 활용 분야에 대한 논의에서 교육과 의료가 가장 효용성 있는 분야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인터넷 활용으로 의료정보 분야가 크게 발전했으며 실질적으로도 국민 건강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향후 이 분야에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면 우리나라가 의료정보 분야에서 세계적 선두자로서 인류의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유비쿼터스 건강 관리 체계의 개념도〉